

# 전남도, 친환경농업 입지 굳힌다... 공모사업 전국 최다 선정

친환경농산물 유통기반 지속 확충  
총 사업비 52%... 88억 예산 확보  
유기농 인증면적 2만4697ha



영광군 백수읍 구수지구에 조성된 친환경 벼재배단지. /전남도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곳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2019년 이후 5년 연속 전국 최다 성과로, 향후 전남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참여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곡성 '동막', 보성 '다도락'·'보향다원', 강진 '영동농장', 해남 '땅끝야베스유기쌀'·'정윤', 영암 '월출산농협', 무안 '해아', 함평 '백련유기'이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도는 전국 총사업비(169억원)의 52%를 차지하는 8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50%·자부담 20%로 분담해 추진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1곳당 평균 10억원(최대 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앞서 전남도는 이번 공모사업에 대비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법인을 적극 발굴하고 친환경농업의 미래 비전을 담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적극 지원한 결과 전국 최다 선

정 결실을 거뒀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2022년 9곳, 2021년 8곳, 2020년 7곳이 선정돼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12월 말 현재 전남 지역 친환경 인증면적은 3만6106ha로 전국(6만9815ha)의 52%까지 확대됐다. 유기농 인증면적은 2만4697ha로

전국의 63%를 점유하는 등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1번지, 전남' 입지를 굳히고 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대상자는 품목별로 벼는 20ha, 벼 이외 품목은 5ha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인증 면적을 확보한 생산자단체 가운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부산시 2023 출향인사 신년인사회

부산시는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부산연고 수도권 지역 출향인사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탓에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출향인사 신년인사회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며, 부산지역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 등 각 분야의 수도권 지역 출향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하윤수 교육감 등 부산지역 주요 기관장과 부산지역 상공계 주요 기업대표, 부산시 실·국장 및 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함께 상경하여 출향인사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부산=김영찬 기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내에 들어설 '전남 산림바이오 거점단지' 조감도. /전남도

##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전남, 전국서 두 번째 조성

200억 규모 산림청 공모사업  
산림자원 산업화 기지 역할 기대

전남산림자원연구소가 올해 나주에 지역 특산 토종 산림자원의 대량 생산과 바이오 산업화의 플랫폼 역할을 할 '전남형 산림바이오 스마트 혁신성장 거점단지'를 착공한다.

16일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는 전국 4개 권역에 조성되는 200억원 규모의 산림청 공모사업이다.

전남은 충북 옥천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돼 2025년 완공 목표로 나주의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 거점단지를 구축한다.

단지에는 산림비즈니스센터, 종자양묘기술센터, 스마트 온실과 묘목생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산림비즈니스센터는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소재 연구개발을 위해 천연물화학 분석실과 추출물 보관실, 임산물전처리실 등 연구실을 갖춰, 임업인 지원, 귀산촌상담, 창업보육, 바이오기업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종자양묘기술센터에는 산업화 대

상 식물 대량 재배를 위해 종자나 식물체를 확보해 대량 증식하도록 종자 저장실을 비롯해 종자활력검정실, 조직배양실, 양묘교육장 등이 구축된다.

스마트 온실에서 발아된 산림식물을 육성해 바이오기업이나 임업농가에 제공해줌으로써 산림자원 산업화의 기지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형 산림바이오스마트 혁신성장 거점단지' 건축물은 '구조용 직교 집성판(CLT·Cross-Laminated Timber)'이란 신기술을 적용한 목조로 조성된다.

구조용 직교 집성판은 나무를 직각으로 교차해 붙인 목재 제품이다. 콘크리트 못지않은 강도가 있고 벽과 기둥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이미 해외에선 다양한 고층 목조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검증된 건축재료로 '미래의 콘크리트'라 불린다.

연구소는 거점단지 건축물에 해당 신기술을 최대한 적용키로 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이미 획득했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 안동시, 경북 최초 '교육자유특구' 도전

尹 정부 120대 국정과제

안동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전국 다수의 지자체가 특구 지정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시가 최초로 도전을 선언했다. 교육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학생 선발, 교육과정 개편 등 '규제가 완화된 특별구역'으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존립의 위기에 놓여있는 지방 도시가 중앙정부의 경직된 규제에서 탈피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안동시는 지난해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

최하며 교육도시로 위상을 세계 속에 널리 알렸다. 또한, 미래성장 동력사업인 바이오·백신·헬스 산업에 특화된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안동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육 다변화 기반」과 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지역이다.

시는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의 기업이나 연구소가 특구 안에 대한학교를 설립하고 재정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에서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민선8기 안동시 시정방침인 차별과 경계가 없는 평생교육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 것"이라고 전했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 영주시, 청년지원 강화... 164억 투입

5개 분야 50개 사업

경북 영주시는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소멸에 선제적 대응 및 청년들에게 기회와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분야 36억 원, 주거분야 35억 원, 교육분야 83억 원, 복지·문화분야 8억 원, 참여관리분야 2억 원 등 5대 분야 50개 사업에 164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억 원 증액한 규모다.

일자리분야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올해만 총 6개 사업 40명을 지원한다.

정규직 프로젝트사업도 병행해 중소기업 취업난 완화와 정규직 전환 촉

진을 위한 고용지원금(기업) 및 근속장려금(근로자)도 각각 3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농부육성지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등 청년의 창농 활성화와 영농정착, 영농기반 구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6개 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12개월,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영주의 미래핵심사업인 베어링산업과 연계한 동양대학교 스마트기계 부품소재학과(베어링특성화학과)에는 5년간 총 33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영주(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 포항영일만항 인입철도 운행 재개

포항영일만항 인입 철도가 16일부터 정기운행을 재개한다.

이 철도는 2020년 7월부터 상업운행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와 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해상물동량이 급감해 2021년 5월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경북도는 해상 운임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면서 포항영일만항으로의 선박량이 늘고 운임도 안정되면서 영일만항역을 이용한 철도 이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운행구간은 포항영일만항역에서 강릉 안인역으로, 연간 14만톤의 우드펠릿이 운송될 예정이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 함평천지전통시장 중기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선정

전남 함평군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징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다.

함평군은 지난해 전통시장 혁신을 위한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31개 전통시장 중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도약형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됐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 영덕군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 점검'

영덕군은 16일부터 24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주요 하천에 대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설연휴 환경 특별감시를 시행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가동예문제가 없도록 대비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영덕(경북)=김종설 기자 kimjongseol@